

### 공동체 소식



### 연중제11주일

하느님,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입니다.

- 안내: 예수 성심 성월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예수 성심의 사랑은 성체성사로 잘 드러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예수성심을 공경하고 묵상하며, 기도와 희생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여야겠습니다.
- 기도: 6월 중에 봉헌되는 모든 미사의 파견예식 전에 '예수 성심 성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매일 미사 3쪽 참고)

#### 이번 주일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 안내: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마태23,9)라고 하셨듯이, 이 세상 아버지들의 위상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아버지들을 통하여 하느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 본당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6월 정기회의

- 일시: 오늘 교중미사 후.
- 장소: 나자렛 교육관.

#### 오마하 ME주말 교육 안내

- 일시: 9월 초, 2박3일(금,토,일)
- 장소: 오마하 성당, 참가신청은 별도의 문의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 전례 성가

	시작	예물	성체	파견
금 주	431	511	169	68
차 주	62	221	153	205

#### 주일미사 복사

	항복사	시중복사
금 주	정예찬 미카엘	정예진 한나
차 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김정원 안젤라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차 주	김명은 안젤라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명희, 한춘희, 최선윤
차 주	행사 1조

####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 마르티노, 조진환 베드로
차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6/10	35 명	221 달러	1,870 달러
김대연, 김호원, 이내익, 정연숙, 홍순익 (총 5세대)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교육관)

####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http://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mailto: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mailto: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에 진리와 은총의 씨앗을 가득 심어 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인내로 가꾸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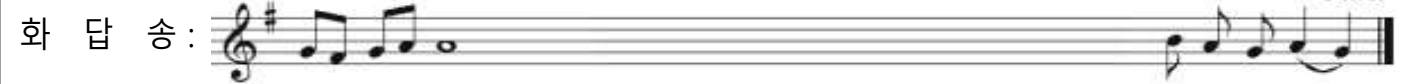
### 그림 묵상

'마음 밭, 어떤 씨앗을 뿌리십니까?'  
마음에 뿌린 씨앗에 따라 맺히는 열매 다를 것  
미움과 증오를 품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마르텐 반 발켄보흐의 '씨뿌리는 사람' 일부.

장재봉 신부 (부산교구 선교사목국장)

제 1 독서 : 예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7,22-24  
<낮은 나무는 높이리라.>



-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울골의 심을 널리 알리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5,6-10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26-34  
 <어떤 씨앗보다도 작으나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

# 생명의 말씀

## 믿고 기다림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인 '조장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다'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조장 助長'이라는 고사성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송나라에 성미가 급한 농부가 있었는데, 눈에 심은 벼가 천천히 자라는 것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지더랍니다. '어느 세월에 저것들이 다 자라려나' 싶어 조바심이 난 농부는, 벼를 하나하나 쑥쑥 뽑아 올린 후,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오늘 가서 벼가 빨리 자라도록(長) 도와주고(助) 왔지!" 아연실색한 가족들이 눈에 나가보았더니, 뿌리가 뽑힌 벼들은 이미 시들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곡식이 자라 열매를 맺는 데에는 다 정해진 때가 있으니, 농부가 인위적으로 뽑아 올린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가꾸어 주기만 하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씨는 농부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저절로 싹이 터서 자라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빨리 자라게 하려 억지를 쓰다보면, 오히려 그 싹은 뿌리가 뽑혀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작은 겨자씨를 땅에 뿌리고 잘 자라도록 가꿀 사명을 부여받은 농부들이라 할 것입니다. 농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조장'이 아니라 '믿고 기다림'입니다. 싹이 터서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영그는 것은 우리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속도가 더디다 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하여 조바심을 내며 '조장'하려 하다보면,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 무리를 하다보면, 오히려 한 해의 농사를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듯,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성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의 논리에 속아, 하느님 나라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하느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만의 왕국을 추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번 주부터 신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교를 떠나 각 본당에 가서 신자분들과 더불어 지내게 됩니다. 이들이 긴 방학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기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그분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느님은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람 속에서  
햇살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듯이 말이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마르 4,33)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 말씀의 이삭

## 장미꽃을 팔던 아이

몇 해 전, 친구와 여름휴가로 태국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모처럼 여행도 갔으니 기분도 낼 겸 좋은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정이 넘어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 일곱 살 정도로 보이는 한 아이가 레스토랑 앞에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장미꽃 한 아름을 안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길거리에서 여행객들에게 그 장미꽃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까지 그 길 위에서 장미꽃을 파는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선뜻 아이에게 다가가 '이 장미꽃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한국 돈으로 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야기하였고, 저는 웬지 바가지를 쓰는 기분이 들어 절반 가격으로 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절반의 가격에 꽃을 주었습니다. 아직 팔 꽃이 남았는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 아이를 뒤로하고 저는 좋은 일도 하고, 예쁜 꽃도 샀다는 기쁜 마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너 정말 착하다'고 칭찬을 해주니 더욱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할 무렵,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계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싼 음식에는 기꺼이 많은 돈을 냈으면서 길 위의 아이에게는 바가지를 쓰고 싶지 않아 오천 원을 깎았던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에게 꽃을 사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 여겼는데, 그 마음 안에도 이미 이

기심과 계산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도 아니었고, 진정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저 자신을 위한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루카복음서 12장 3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주님께서는 가진 것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쓸모없는 것을 이웃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것, 내가 아끼는 것을 이웃과 나누라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마태오복음서 6장 2절에서는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선행일 것입니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 아이를 찾아갔지만, 이미 아이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다시 만난다면 남은 꽃을 몽땅 산 후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지만, 이미 아이는 남은 꽃을 팔기 위해 또 다른 곳으로 떠난 듯했습니다. 누구나 좋은 일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선행'은 정말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선행'의 의미를 떠올려봅니다. - 최희 마리나 | 아나운서

## 교리상식



### 영성체가 소죄를 없앤다고요?

영성체를 통해 죄가 없어진다는 말의 근거는 "영성체는 우리를 죄에서 떼어놓는다. 영성체로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며, 우리가 마시는 피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다. 성체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정화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393항) 조심히 할 것은 '고해성사 안 하고 성체만 열심히 모셔도 되겠네'라는 유혹이며, 마음에 걸리는 것은 고해성사로 해소해야 합니다.

글\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말 발행